東亞日報
二十四日夕刊 今日四面
發行所 株式會社 東亞日報社 京城府光化門通一三九番地
電話 光化門 代表番號 一九〇〇

減俸反對運動猛烈·擴大

鐵道全省職員大會

三千會衆의彈劾氣勢와喊聲에 江木鐵相唐慌潜身

【東京二十三日發電通】鐵道省減俸反對氣勢가 白熱化하야 現業員 二百九十名은 二十三日午前十時부터 品川車掌室에 集合하야 氣勢를올리고 正午부터는 丸之內鐵道俱樂部에서 各地方鐵道局 代表者와 各局別로協議하고 二十四日 日本全國現業員大會의 準備協議를 하얏스며 新橋驛構上에서는 東鐵管內現業員의 鐵相會見報告會를 열고 各職場이 모다騷亂하야 地方鐵道局代表도 續續上京하는 中인데 本省에서는 減俸反對 省全職員大會가 午後零時半부터 第一會議室에열리어 約三千名의 職員이 立錐할餘地가 업도록 運至하고 最初小山事務官의 經過報告가잇슨뒤 江口事務官期議의 決議文을 滿場拍手裡에 可決하얏다 鐵相은 此氣勢에 눌리어 어데로인지 潜身하얏는데 紛然한 鐵相彈劾의 空氣가 橫溢하고 狹隘에 對하야는 總辭職도 敢行할 形勢이엇다 決議는 減俸理由는 不明確하야 諒解하기 어렵다하고 또 此次 鐵相의 待遇改善의 聲明을 ㅅ드리는 此減俸案을 撤回하고 諸給與를 確保한다고 言明하야주기를 求한것이다

全國代表續到

【東京二十四日發電通】鐵道全國從業委員大會는 本日午後一時부터 開催하기로되어 全國各代表는 續續入東中인데 札幌,仙臺,大阪,名古屋의 上京委員 約六百名으로 會場狹隘 其他事情으로 會場을 本省第一會議室에 變更하고 또入場者를 制限하야 第三者의 潜入을 警戒中이다

反對運動鎭撫 大藏次官報告

【東京廿三日發電通】河田大藏次官은 廿三日午後鐵相을 官邸에 訪問하고 大藏省內의 減俸反對運動은 誤解에 基한것으로 今朝反對代表에게 對하야 諒解를 求한結果 運動은 圓滿鎭撫한 旨를 報告하얏다

各警察部長 急遽歸任命令 萬一의念慮로

【東京二十三日發聯合】內務省에서는 二十三日 警察部長會議의 關係로 上東하야 滯京中인 各縣警察部長에게 對하야 地方鐵道現業員의 減俸反對運動이 相當히 强硬한즉 今日과 가튼 時局에 當하야는 어떠한 不詳事가 勃發할는지 測知키 어려움으로 곳歸任하도록 訓令을 發하야 그歸任을 命하얏슴으로 各警察部長은 同日에 急遽歸任하얏다

「斷行할뿐」 民政緊急總務會

【東京廿三日發電通】民政黨은 廿三日午後二時本部에 緊急總務會를열고 山道幹事長 其他로부터 鐵道省을 비롯하야 各方面의 減俸反對運動狀勢를 報告하고 此에 基하야 種議的意見을 交換하얏는데 結局 與黨으로는 政府가 與黨의 意嚮을 들어 百圓以上으로한것은 妥當하다 此에對하야 各方面에서 反對運動이 잇다고 只今에 躊躇할것이아니다 今後는 다만 斷行할뿐이다 고함에 一致하고 어듸까지 政府를 支持하야 既定方針의 遂行에 努力하기로되엇다

各方情勢一束

◇農林省【東京廿三日發電通】農林省은 減俸問題에對하야 매우硬化하고 廿三日會合하얏스나 各省과 步調를 一致하기로되엇다

◇大審院【東京廿三日發電通】今日外지 靜觀하든 態度를 取하든 大審院 書記二十五名은 二十三日正午 牧野大審院長을 面會하고 減俸反對를 陳情하얏다

◇帝國教育會【東京廿三日發電通】帝國教育會는 廿三日午後一時半부터 理事會 二時半부터 評議員會 三時부터總會를열고 役員을改選한結果 會長에는 林會長이 再選되엇스며 尙且教員減俸問題에 對하야 意見을交換한結果 教員의 減俸은 國民思想上 惡影響이 잇슴으로 絶對反對케되어 그旨의 聲明書를 發表하얏다

◇貯金局【東京廿三日發電通】麻布區飯倉의 貯金局에서도 減俸을 反對키爲하야 廿三日午後一時半부터 判任官三百名이 食堂에 參集하야 陳情書를 遞相에게 提出할을 決定하얏다

◇內務省【東京廿三日發聯合】內務省의 減俸反對運動은 表面化케되어 廿三日午後一時 判任官 百三十名이 集合하야 減俸反對를 安達內相에게 上申할을 決議하얏다

◇宮內省【東京廿三日發電通】政府가 一般官吏의 減俸을 敢行하기로 되엇는데對하야 宮內省에서도 歲入激減의 此際임으로 官吏로는 一般立場에 立하야 政府와 同步調를 取하야 減俸할것이라는 意嚮도 잇스나 省內의 反對氣勢는 頗히 濃厚하야 大多數는 絶對反對의 態度를 取하고잇다

◇檢事團【東京廿三日發電通】東京地方區裁判所의 少壯檢事들은 二十三日正午부터 區裁判所 檢事局調室에 모히어 減俸反對의 氣勢를 올리는데 反對運動은 政治運動과 反抗運動이 다르고 또 服務紀律以外의 것임으로 正正堂堂히 하자하야 大體의 運動方法을 決定하고 退廳後某處에 集合하야 對策을 講究할터인데 運動의 旗幟는 『判事團의 護法에 對하야 偉援』한다는것이며 且檢事團에서는 運動의 効果가 잇게 하기爲하야 各省連絡會議開催의 機運을 釀成하는 모양이다

◇辯護士團奮起【東京二十三日發聯合】帝國辯護士會에서는 二十三日 午後三時부터 東京地方裁判所構內 第一辯護士會館에 理事會를 열고 司法官의 減俸問題를 協議한結果 司法官當局에 警告를 發하기로 決하고 決議文을 可決한뒤 同六時에 散會하얏는데 出席會員 三十名을 모다 實行委員으로 推擧하야 若槻首相、渡邊法相 兩官邸에 各各決議文을 手交하얏다 尙且辯護士의 減俸反對는 이것이 最初인데 此를 導火線으로 各府縣의 辯護士會도 蹶起하는 形勢이다

反對不拘하고 決定대로斷行

『地方民多數는이를支持한다』 政府는前途를樂觀

【東京廿四日發電通】減俸案에 對한 鐵道省內의 反對運動에 對하야 政府는 事態가 重大化할을 未然에 막기에 힘쓰는데 政府는 鐵道內部에서 『鐵道를亡하라』라는 그傳統的精神을 發揮하야 一致하는모양임으로 廿四日 全國現業委員大會에서도 此以上 惡化치안흘것이다 그러나 此를 全國的으로보면 地方農村에서는 減俸斷行을 要望하고 다시 廿六日에는 全國町村長會議에서 減俸贊成의 決議를 바들터이므로 地方民의 多數는 政府支持의 態度를取하는모양인즉 結局反對도 一時的에 될것이라고期待하며 若槻首相은 國家를爲하야 政府의 威信을爲하야 旣定方針대로 斷乎히 減俸案을 實施할決意를 堅固히갖고 此旨를 廿三日與黨 顧問木務, 山道幹事長에도 傳하얏고 또廿六日의 閣議에서 正式으로 決定한뒤 곳勅令公布케 하라고 法制局에 命하야 諸般의 準備를 行케한 모양이다

今番減俸斷行은 「赤字」補塡의犧牲

江木鐵相의演說로曝露되어 閣僚間에도一問題難免

【東京廿三日發聯合】江木鐵相은 二十二日夜 現業委員會에서 減俸斷行事情에 對하야 說明한 演說을 하얏다 政府側 最初의 公式聲明으로 減俸案이 歲入補塡의 直接犧牲이된다 明言한것이라하야 注目된다 即赤字額은 年度初의 現在에만 六千萬圓 以上에 達할豫想으로 今年度豫算에 不足하는 震災復舊事業費는 約一千萬圓 減少되엇는데 政府는 此에對하야는 五年度와 同樣으로 震災善後公債를 發行하야 支辦하기로 方針을 決定하얏다 述한바 此鐵相의 減俸案이 今年度 赤字補塡의 直接犧牲이라는것을 넘우도 明白히 曝露한것으로 政府當局者間에도 一問題는 難免이다

減俸反對=期成同盟結成

陳情을써나抗爭運動에 遞信省員强硬決議

【東京二十三日發聯合】遞信省의 減俸反對運動은 陳情運動으로부터 正式反對決議를하고 堂堂히 抗爭케되엇다 即廿三日午前十時 經理局內의 營繕課 各係及 直接現場監督의 技師、技手等 二百六十名은 現場에서 事務服을 입은대로 本省判任官 食堂에 參集하야 本省各局의 聯合協議會보다 먼저 强硬한決議를 滿場一致로可決하얏다

◇決議 左의事項에 對하야 吾等技師技手判任官廳員及傭人은絶對反對함

◇反對事項
一、一律減俸
二、人員整理
三、賞與減額
四、昇格停止
五、諸給與減額
右決議함

이와가티하고 共同十一時後부터 各局課에 此決議를 飛檄하야 實行委員會를 召集하고 곳 全省을通하는 減俸反對期成同盟을 結成하고 今後 此同盟에 依하야 反對運動을 繼續케된바 此減俸反對期成同盟은 各局課에서 二名씩의 委員을 擧하야서 政府의 反省을 求하랴고 小泉遞相에게 意思를 表明하게되엇다

三條項決定書 遞相歸任하면 即時手交豫定

【東京二十三日發聯合】遞信省管下 高等官以下 從業員의 減俸反對 期成同盟會는 繼續하야 實行委員이 協議한結果 減俸反對 陳情書와 압에와가튼決議를 決定하고 旅行中의 小泉遞相이 歸東하는대로 此를手交케되엇다

◇決議
(一)政府는 官吏의 減俸實施前에 國家財政整理의 具體的方針 大綱을 定할일
(二)政府는 社會政策的 方針에 基하야 稅制의 根本的改革을 斷行할일
(三)人員의 積極的整理를 안할일

右三項目의 實行을 미리天下에 聲明치안흐면 今回減俸案에는 絶對反對함

「政府過誤」를 官吏에게轉嫁

實施가成功해도責任難免 貴院,民政系外各派는反對

【東京廿三日發聯合】政府는 官吏減俸을 斷行할 方針을 定하고 二十六日 閣議에서 正式으로 決定한뒤 六月一日부터 實施케된바 此에對하야 貴族院各派의 意見은 民政系의 同成會를 除한 外는 모다反對意見으로 政府는 自己의 誤로歲入缺陷이 생긴다고하야 아모責任이업는 官吏의 減俸으로써 補塡한다는 것은 許할수가업는 罪惡이다 이런愚策을 하는境遇는 政府의 此로 因하야 官吏의 志氣를 分喪하고 前途에 暗影을 投할뿐아니라 此를誘致하야 國家에 莫大한 損失을 줄것이요 減俸實施가 司法官其他의 反對에 依하야 實施할수업는때는 勿論 責任은 免치못할것이라고 하야 論이요 實施하얏다고 할지라도 此前途를 注視한다

中央을徹底擁護 平和紊亂者討滅

一兩日中에軍事會議開催하야 張學良氏가聲明豫定

【北平廿二日發】南京에서歸來한 張學良氏의 態度는 各方面에 注視되는바 確聞한바에 依하면 一兩日中北平에서 部下의 將領及 山西、西北兩軍의將領等을 召集하야 軍事會議를開催하고 今番의 國民會議狀況을 說明하고 廣東의 反蔣運動에 對한 中央의態度及 決心을 說明하야 徹底的으로 中央을擁護하되 若命에反하야 平和를紊亂하는者는 公敵으로하야 此를討滅할것을聲明하리라한다 (大朝)

廣東港口戒嚴 船舶夜行禁止

【廣東二十三日發電通】廣東의港口에서는 時局急迫으로 戒嚴令을布하고 出入艦船에 對하야 嚴重한檢査를施行中으로 午後七時以後 午後四時外지는 一切船舶의 通過를 禁止하얏다

廣東攻擊 海軍總司令으로 陳紹寬氏任命

【上海廿三日發電通】蔣介石氏는 陳紹寬氏를 廣東攻擊海軍總司令에 任命한바 陳氏는第一長江艦隊十餘隻을 率하고 近近南下할터이라

民政民國視察團

【東京二三日發電通】民政黨 多田滿長、最上政三、宮澤胤男、武谷甚太郎、山内亮、岡田春夫、佐藤謙之輔、長野綱良、八氏는 政治、經濟事情 視察目的으로 廿三日午後七時 東京發 渡中의 途에 就하얏다 一行은 上海、南京、漢口、天津、濟南、青島、大連、旅順、奉天、哈爾賓을 經由하야 六月末 歸東豫定이다

橫說竪說

□ 尋常小學校 校長과 敎員이 作黨하야 普通學校 生徒를毆打取傷케하얏다 주머니안두젓스면 多幸

□ 富者가 돈안내어 解散을 決議한 普校 後援會가 잇다 富字는 元來 吝字와 相通

□ 減俸의 巨斧를 든 政府는 四面楚歌中 一條血路는 案의撤回

□ 歐洲聯盟委員會에서 露代表가 提出한 經濟不侵略案을 佛外相이 大反對 侵略案이엇드면 大贊成일번

忠武公遺蹟保存會創立 當然한順序

一

忠武公의 墓所、位土、遺物等을 永久히 保存하야 民族的으로 記念하자는 主旨下에서 昨二十三日 市內水標町 朝鮮教育協會안에서 社會 各方面有志가 會合하야 『李忠武公遺蹟保存會』를 創立하얏슴은 公에對한 우리의 微衷과 丹誠을 다하기爲하야 時宜를어든 當然한 順序이라 할것이다. 沈滯된듯한 民族的 意氣가 듯기에 괴롭고 罪悚스러운 墓所問題로 말미암아 斷然히 한길로 모힘을 볼때, 이만한 發展은 진즉 豫期하엿든바이어니와 이제 擧族一致로 保存機關이 創立되엇다는 消息을 接함에 우리는 새삼스러히 우리의 義務의 一端을 履行할수잇다는 感激과 아울러 宿願을 成就한듯한 感激마저 늣기게된다.

二

本報가 일즉 墓所問題의 經緯를 報導하야 이江山, 이民衆에게 우리의 聖將이오, 罪過임을 呼訴한 以來로 黨派와 階級을 超越한 民衆의 精誠과 齊發이 어떠케 絶大한 것은 每日報導하는 本紙面으로도 充分히 짐작할일이어니와 더욱히 이번 이保存會의 發起에 統營, 馬山, 平壤, 鐵原等地方에서까지 일부러 上京 參席한것가튼것은 이 保存會創立을 一般이 얼마나 期待하엿던가를 端的으로 表示함이라 할것이다. 民族的恩人에對한 우리精誠의 具體化가 이保存會라할진대 이 保存會의 存在는 우리와 公과의 紐帶가 될뿐만아니라 眞實로 民族全體의 守護의 救僊이될것이다.

三

이미 會가 創立되고 委員이 選擧되엇스매 事業의 具體的實現은 責任을擔한委員間에 成案이잇슬것이다. 債權에 얼매인 墓所나 位土問題를 解決함이 當面한 先決問題이어니와 公의遺物에잇서서도 이번 機會에 徹底히 收集하야 萬代의 자랑을 삼아야 할것이다. 長劍 한자루나, 玉簫한개나, 甲冑, 屛風等 무릇 公의 手澤이 남은 遺物로서 우리의 자랑거리 아님이 업스며 우리의 守護할것 아닌것이 업슬것이다. 牙山 宗家에 保存되어잇는 各種遺物은 勿論이어니와 統營忠烈祠, 順天, 南海, 康津, 淄陽等 各處 忠烈祠에 保存된 遺物은 이번 機會에 完全히 統一保存하여야 할것이다.

四

物質的으로 精神的으로 民衆의 聲援을 土臺삼아 이러난 이保存會의 義務를爲하야 우리는 그前途에 만흔 期待를가지거니와 全民衆의 付托을 바드니만큼 保存會委員들의 責任이 또한 至重하다할것이다. 眞摯한 態度와 周到한 用意로써 故障업시 有終의 美를거두도록 하기를 民衆을代하야 局에當한諸氏에게 [illegible]

忠武公遺蹟巡禮 ④

李光洙

五月二十一日

朝八時七分 溫陽發。驛에서 貫齋李道榮氏와 邂逅。天安에서 貫齋는 上京。나는 十時十一分의 釜山行을 탓습니다。

이 地方의 소나무가 大部分 말라죽엇는데 그것이 松蟲이 때문이라고도하고 昨年의 치위 때문이라고도 합니다。可惜한 일입니다。

懷德、芙江等地의 山水의 아름다움을 칭찬하면서 大田에 下車한것이 十一時 五十三分。여긔서 十二時 十五分 木浦行을 탓습니다。

驛驛에서 長城의 志士 宋、金 兩氏를 만낫는데 兩氏는 新幹大會로 京城 갓다가 오시는길이오 天安서붙어 同車 하면서도 모르고 왓습니다。여긔서붙어 長城新興里까지 談話하고 왓습니다。

木浦驛에 오니 午後七時十分。木浦支局의 林君을 따라 新昌旅館에 들엇습니다。

五月二十二日

早朝에 支局의 車君도 만낫는데 君은 故友입니다。午前八時에 右水營、碧波津을 向하야 車君과 함께 沖興丸이라는 二千四噸되는 小船을 탓습니다。날이 흐리고 바람이 차서 港內에도 배人결이 약간이는것이 今日의 天候의 險惡을 豫示합니다。비와 風浪은 當할 심하고 떠낫습니다。

沖興丸이 디젤엔진을 포포 거리면서 港口를 떠나자 우리는 젊은 船長 金君의 好意로 船長室에서 風景을 觀覽할수가 잇엇습니다。

左로 長劍을 누어놓은듯한 岩山이 高下島、一名 칼섬 右로 港內를 가로 마은것이 押海島 (아마 앞에 섬 이란 말인듯)、이 두섬 끝이 마조 닿은 목이『대나리또』(竹津梁?)、日本名으로 木浦口。대나리또를 나서면 바다가 넓어지는데 그것이『씨아人바다』、이것을 漢字로 時下海라는데 그것은 이바다의 東南에 가로 놓인 씨아섬 (時下島)에 온 이름입니다。씨아人바다 들어서면서 右便即 西便에 押海島 동뒤에 어엿븐 섬이 잇으니 그것이 外達島、夏期면 日本小學生들이 海水浴 캠핑 하는데라고 합니다。

씨아人바다의 西南으로 暴滿같이 보이는 諸島가 小作爭議로 有名한 岩泰島、珍島等 입니다。

木浦서 씨아섬이 一時間、씨아섬서 右水營이 一時間。右水營에 다은것이 十時 조금 지나서 右水營의 忠武公勝捷碑는 回路에 보기로 하고 다시 여긔를 떠나서 約三十分程인 碧波津으로 向하엿습니다。

右水營과 碧波津 사이가 珍島와 花源端이 마조 바라보는、울돌목이 (鳴梁、鳴洋)이라는 海峽인데 이 海峽이야말로 忠武公 三大水戰中에 하나인 鳴洋大水戰의 舞臺입니다。때는 丁酉年九月下旬、달이 西天으로 기울어서 珍島의 山影이 바다 海面을 가려울 때에 忠武公은 敗餘의 兵船 十二隻을 끌고 百三十餘隻의 敵船을 誘引하야 이 곧에서 粉碎하니 이 水戰때문에 湖南이 保全되엇고 또 이 水戰때문에 壬辰亂의 終局을 우리편에 有利하게 햇게하는 最大한 要因을 지은것입니다。

『울돌목』이라는것은 每日二回潮水가들어올 때에는 이 벽력같은소리에 와서 波濤가 일고 소리를 내인다는것인데 설어때가 가장 볼만하고 그中에도 陰十月 보름쯤이가 고작이라고 합니다。

九月十四日에 敵船二百餘隻內 五十五隻이 벌서 漁蘭津에 왓단 探報가 잇고 또 敵船에 잡혓던 避亂民의 말이 朝鮮舟師十餘隻을 粉碎하야 報復하고 곳 京江으로 向한다는 報導가 잇어서 十五日에 忠武公은 그 亂中日記에 이러케 적엇습니다—

『十五日癸卯晴。數小舟師不可背鳴洋爲陣故移陣于右水營前洋招集諸將約束曰兵法云必死則生必生則死又曰一夫當逕足懼千夫今我之謂矣爾各諸將勿以生爲心小有違令即當軍律再三嚴約』이라고。

十六日甲辰晴 이라 하고 이날 大海戰의 大綱이 기록되엇는데 敵兵死者 四千餘, 敵船을 깨트리기 三十一隻이라고 하엿습니다。

이 날의 싸움에 諸將은 衆寡不敵할줄을 알고 遠望만하고 忠武公自身이 한 旗船이 單獨奮戰하엿습니다。그때人일을 公은 日記에 이렇게 記錄하엿습니다。

『余從容諭之曰賊雖千隻莫敢我船切勿動心盡力射賊顧見諸將船則退在遠海觀望不進』이라 하엿습니다。

公은 배를 돌려 諸將船을 따라 巨濟縣令安衛船을 向하야 『安衛欲死軍法乎 汝欲死軍法乎 逃生何所耶』(亂中日記)라고 하매 安衛는 『慌忙突入賊船中』하야 大功을 세웟다고 합니다。

이리하야 傷傷한部下를 稱韆하면서 이歷史的 大海戰에 大勝을 制하엿습니다。

■四月八日은奏開則行 傑作 世界의女子 12
高原의凱歌 8
◇라스트崇 料金階上卄錢階下十錢均一
夜間은從前料金대로
五月廿六、廿七、廿八三日間은
斷想悲曲 10
씨 흑
二百萬弗 셴추레일 1012
巴里는조흔곳 8
大映畵 期待하시압오는二九日을
高級常設 國民社 電話光九五九番

淋疾 必治 懸賞 無代進呈 大星堂藥品部

院長 醫學博士 松井武部
松井眼科病院
釜山大廳町 電話二一四二番
◎希望하면契約治療

忠南禮山邑內
產婦人科 皮膚科
回生醫院
不妊症相談應
醫師 閔丙禹 電話二一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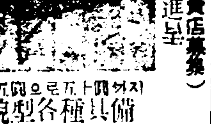
職業
遠近不問男女自宅에서 永久히되는일
製品은 全部引受 見本進呈
大阪港區九條北通三 博信社

■五月廿三日낫부터特別大公開
料金 上 大人卄錢 小人卄錢 下 大人卄錢 小人十錢
戀愛行進曲 7
暴力團 9
大名醫 村醫師 10
朝鮮劇場 仁寺洞 電話光一二八一番

伯林의尖端兒 8
學窓을나와서 8
독갑이 발자국소리 5
市內 優美館 電話光二九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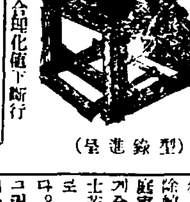
筆耕 女子宅內職
貫文館 京都市東山區

(特約販賣店募集) 型錄進呈
折脚式敷製寢臺
東大門外 製造販賣所 主 黃錫孝



備具種各型貌 五拾圓以上無料

稻扱은 トーア式!!
輕快·堅牢·廉價



(型錄進呈)
●製產合理化徹底斷行
元賣捌店募集中
大阪市港區市岡元町三丁目 東亞物産農機部 電話西五七一番

陝川李氏大同譜 氏族五萬名
陝川李氏는大同譜를發行코자去五月十日晉州邑內晉陽堂印刷所에서各派宗代表四十六名이集合하야大宗會를開催하고諸般事項을決議하얏는데名錢은大人三十錢兒童二十錢式으로添附하야修譜單子를迅速히提出하되大同譜의印刷는今年九月末에大成하기로하고所任은...李氏族五萬名에게通文을發送하얏다고한다

改名廣告
本人이右와如히改名하얏삽기玆에謹告함
舊名 金益範
新名 金正吉
東亞日報社內

當選謝禮
今般仁川府會議員選擧에際하야有權者各位의深厚하신聲援을입사와當選의榮을得하얏삽기玆에紙上으로써感謝의禮를드리나이다
吉木善

귀찬흔바퀴는 이러캐退治하 서야합니다

부엌을더럽게하는 바퀴를업새는데는 이마쓰氣取粉을 뿌려두면 바퀴는 모다뛰어나와죽습니다 加에서는바퀴업새는데는 이마쓰氣取粉을使用하고잇습니다 또이마쓰氣取粉은 이가루의退治를 위하야나 衛生大掃除의除蟲 衣類害蟲의除去 除蝨·庭木·盆栽의害蟲 獸家庭害蟲을 아조적은分量으로도 完全히全滅합니다 到處藥店에서販賣합니다 大阪 東京 今津化學研究所

各方面의有志會合 遺跡保存會創立

작일, 조선교육협회안에서 모이어 리충무공유적보존회를 창립햇다

蘇生된忠武公崇拜熱

리충무공(李忠武公) 묘소, 위토, 사당, 유물등을영구히보존할방침을 강구하자는 회의는 예정과가티 二十三일 오후두시 시내수표정 조선교육협회에서 개최되엇다

청각 남궁훈(南宮薰)씨로부터 개회를선언한후 의사진행에 드러가 림시의장남궁훈 씨긔선 명균(朴明均)량씨를 선거하고 회명칭(會名稱)은 리충무공유적보존회(李忠武公遺跡保存會)로하기로 만장一치 가결햇다

保存會委員 十五人選擧

다음위원을 선거한결과 알에와가티 十五인이당선되고 회무진반에 대하야서는 위원들에게 一임하기로하고 동네시경 폐회햇다

委員‖▲尹致昊▲南宮薰▲俞鎭泰▲朴勝彬▲俞億兼▲崔奎東▲安在鴻▲曺晩植▲鄭廣朝▲金正佑▲金炳魯▲鄭寅普▲韓龍雲▲尹顯泰▲宋鎭禹

地方代表도 敗氏가參席

모은이들은시내각방면유지는 물론이오 멀리 통영(統營)으로부터서는충렬사(忠烈祠)대표로 김종원(金宗元)씨를 파견하야 참석케햇스며 그외에도청원쇄도

회를마친후 위원들은 별실에서 림시위원회를열고 위원장윤치호씨를 선거한후 즉시폐회하얏는데 수일후또다시 위원회를열더이라고한다

墓所、位土、遺物 永久保存을目的

遺蹟에對한各項報告

별항‖보존회의 석상에서 유진태(俞鎭泰)씨로부터 충무공위토, 묘소문제에대하야 알에와가튼 보고와 주장이잇섯다

충무공 위토수입은 一년간一백九十五원인데 그중 세금과산림조합비(山林組合費)등 一백十원을 제하면 남어지 八十五원이다 이것으로써 그유물, 묘소등을 보존하기는 넘어로불가능한일이며 더욱이 그 위토는 은행에 저당이되어잇스며 묘산도 어떠한곳에 잡혀잇다고한다

이와가튼 형편이니 우리보존회에서는 적어도 二만원가량을 만드러가지고 공을 긔념할여러가지사업을 하지안흐면 안되겟다고햇다

事務所設置

창립된리충무공 유적보존회의 림시사무소는 수표정四二번지 조선교육협회안에 설치하얏다한다

吉州靑盟員 兩名을檢擧

【길주】 길주군덕산면 백원동(吉州郡德山面百元洞)에 거주하는 길주청년동맹간부(吉州靑年同盟幹部)김철원(金鐵元) 김봉강(金鳳剛)량명이 수일전 길주서에 검거되어 연일취조를 당하다가 지난十九일에 들연무슨단서나 어덧슴인지 김철원씨를사법계주임이 다리고 동씨집에가서 가택을수색하고 그날五시차로 도라왓다

사건내용은 비밀에 부침으로자세히는알수 업스나 란문한바에의하면월전에 길혜선축하회(吉惠線祝賀會)때에 불셩를 업시경계하고 잇는가운데서 교묘하게도 격문다수를 산포한사건이잇섯는데 우금범인을 체포치못하야 고심하던바 전긔량인을검거하야 엄중취조중이든바 이사실이 탈로된모양이라한다

東海面靑盟員 六名吉州押來

지난二十一일 동해면 청맹원(東海面靑盟員)리일(李一)외五명이검거되어길주경찰서에와지 압송되어왓다는바 사건내용은 비밀에부침으로 자세한 내용은 알수업스나 란문한바에 의하면 지난十一일 동해면일대에 세라를 산포한사실이 잇서서 그로인하야 밤을새워가며 동해주재소에서 범인체포에 노력중이데 이세라사건의 혐의로 붓잡혓든 모양이라고한다

定平農組會館 警察이又復檢擧

【新上駐在所에서出動】 書籍二十餘册押收

【진흥】 정평경찰(定平警察)은 그곳농민조합(農民組合)의 다수한간부를 검속취조하는 일방 그회관을수색하야 다수한문서와 서적을압수하야갓슴은 세민이 다아는바어니와 지난十六일아츰에 또다시 신상주재소원(新上駐在所員)이 그조합회관에나타나 수색한후 사적유물론(史的唯物論)이란책외 三十여권의서적을 압수하야갓다고한다

保險金貪내 隣家에放火

보험금을 탐내어 그이웃집에 불을 노핫든 사건의 피고 시내송현二정목 문화양복점(文化洋服店)주인김치윤(金治允)에 대한 공판은 二十二일 경성지방법원에서산하(山下)재판장민(關)검사립석으로 개정햇다 예심결정에 의하야 사건의내용을 보건대 피고는 그양복점의 물품을 대북화재(大北火災)에 五천원의 보험을 걸고 작년七월四일밤 그보험금을 사취할 목적으로 그이웃에잇는 조일양복점(朝日洋服店)에 불을 노핫다는것이다

이에대하야 검사는 방화사건은 종로와 가튼 번잡한 곳에서 한 범행과도 오히려 사정이 다르니 엄벌할 필요가 잇다고 징역七년을 구형햇는데 언도는오는二十九일이라고한다

釋迦世尊誕辰

명일이 석가여래의 탄일이다

覺皇寺의各種記念

거금 二천九백五十八년전 四월八일 인도『가비라국 룸빈이』동산『무우수』나무밑에에서 탄생하신『석가여래』의 성탄을 봉찬하기위하야 음四월八일 시내 각황사(覺皇寺)에서는 다음가튼 법요를 거행한다

午前八時半 獻供禮懺

同十一時 奉佛移轉(覺皇寺發至安國洞四街敎化門前經由轉至鍾路直往光化門通式場)

午後一時 灌佛式

灌佛式順序

一、開會(爆竹)
一、奏樂(樂隊)
一、讚佛歌(學生一同)
一、歸依三寶(參列衆一同)
一、讀經(心經)
一、八相(禮式法師)
一、慶祝歌(學生一同)
一、灌佛(各團體代表)
一、回向(禮式法師)
一、閉式(奏樂)

午後八時 奉讚講演(覺皇寺)

佛陀의世界觀 中專講師 金敬注氏

沙婆의燈臺 中專敎授 朴東一氏

六牙白象 佛敎主幹

永生校生盟休

【함흥】 근자의 함흥학생맹휴풍은 영생고보(永生高普)에도미처서 二三학년생이 二十三일 돌연학교당국에 월사금감액등 三개조건의진정서를드리고 맹휴를 단행하엿다한다

野球聯盟戰畫報 【上】 入場式光景 【下】 白熱된競技

培材軍猛打連發 百折不屈의儆新

관중을 각흥케한 경신의력전

昨日의野球聯盟戰

구락부야구련맹전(俱樂部野球聯盟戰)의첫날, 一루에 진을친 배재의응원단과 三루에 진친 경신의 천에갓가운응원단을 비롯하야 스탠드에넘치는 관중의박수성리에 작二十三일 오후四시분 전경신대전배재(全儆新對全培材)제일회전의 장엄한막은 계동휘문구장에서 열렷다

이날오후二시반, 五년만에 四구락부선수一백十여명은 한운동장에 열개를가티하야 휘문악대의주악리에 입장식을 행하고 경당번위원장 박용희(朴容喜)씨의식사를나어휘문구락부로부터 우승배반환식이잇섯고 금년에 처음으로실행하는선수선서문을 중앙구락부주장 최용준(崔容俊)군으로부터랑독한후 별항과 가티 예입을열렷다

이리하야 오랫만에 출전하는 경신군은 그동안 선배의양성이 어지간만큼 현역을 중심으로출전한데비하야 전배재군은 만반의진용으로 대전하야 스코어는 처음부터차이가커젓스나진세가불운에처하면서 뭇사지 굽힙업시 선전하야 관중의감격을 자아내엇다 결과는十五대二로 배재一승한바 스코어는 다음과갓다

15—2

全培材大勝

對全儆新一回戰

廿三日午後四時三分、儆文球場에서(球)李源容(壘)鄭文基、徐珉濬三氏審判、全培材先攻으로開始、閉戰午後六時五十分

得點	一	二	三	四	五	六	七	八	九	
(培)	3	2	3	3	2	1	1	0	0	15
(儆)	0	0	0	0	0	0	1	1	0	2

【第一回】 (培)白基殊2—3의뒤 左前에安打하야 바로二盜、昌俊三衛高投에 一氣로 二進하야 羅朝華三邪飛一死後 吳潤煥遊衛失에 白은三進하얏다가 成觀華의 三遊間安打를 左翼昌俊『런닝』로 本壘打가되어 白、吳、成三者生還、池成麟三振二死하고 金日培遊二間安打로 出하야 張貴男三衛一壘惡投에 二進하얏다가 李命福遊衛에 三編에서 刺殺되다▲(儆)鄭應淳遊衛、李

……았다가 金東石右前安打에 三進하고 東石은二盜、李永善2—0의뒤 三邪飛二死後 劉約翰死球로滿壘의 찬스를어덧스나 金貴男2—2뒤三振으로 機를逸하다(培三、儆〇)

【第二回】 (培)金永奭左翼線上의左飛를落球하야 一擧二進、白左飛一死後、羅二衛失에 永奭三進하고 羅는二盜하얏다가 吳의右線側의安打에 兩者生還하고 成三振、池三邪飛▲(儆)李彰善遊衛、崔俊亮三振二死後、崔海龍三壘頭上의 直球安打로 出하야 二盜하얏스나 鄭三振하야 또機逸(培二、儆〇)

【第三回】 (儆新左 李昌俊은 右劉約翰과交代)(培)日培ㅡㄴ의뒤 左線上에三壘打를치고 張左中間二壘打에 日培生還하고 張命福死球로 出하야 永奭遊衛에 封殺된後 投手의牽制球를 遊逸하는사이 永奭은三壘、白은二壘에各進하고、羅의中前單打를 中堅本壘에 高投하야 白生還、吳投飛▲(儆)昌俊秦石各左飛、永善投衛로 無點되다(培三、儆〇)

【第四回】 (儆新東投左交代)(培)成三振不死로出하야 池投衛에 二進하얏다가 日培遊二間安打에 生還하고 이사이日培는二進하얏다가 暴投에三振、張左飛失에 日培生還、命福投衛에張은三進、永奭四球로나아가、二盜하고 暴投에張또生還、白四球로出하얏스나 羅二飛로 마치스니 또三點을加▲(儆)三者凡退(培三、儆〇)

【第五回】 (培)吳、成三振後池는 一壘手잡엇스나 커버하는이업서 安打되어 日培의三前內野安打에 池는三振、이때日培도 二進하얏다가 捕逸에池生還、張遊衛失에 日培또生還、命福遊衛▲(儆)二死後、鄭二衛에出하야 昌俊四球에 押進하얏스나 東石遊衛에 昌俊封殺(培二、儆〇)

【第六回】 (培)永奭四球로出하야 二、三壘를盜하고 羅의엔트에生還할새、此回처음으로培材無安打로一點을許할새▲(儆)永奭遊衛低投에 二進하얏스나 後援이업다(培一、儆〇)

【第七回】 (培)嚴點得—五間에成과交代—右翼二壘打로 劉三衛高投에二進하얏다 ... 一點을 어덧다(培一、儆一)

【第八回】 (培)(陣容大變動)—遊白基殊退하고趙漢鵬入、二羅朝華退하고裵輪增入、左嚴點得退하고金仁植入、永奭退하고元小者入하야左에七回末부터交代) 命福三衛低投에 ... 二衛에 後援이업다(培〇、儆一)

【第九回】 (培)吳右飛、金仁植遊飛、池投衛▲(儆)鄭一飛、昌俊投衛、東石三振(兩軍零)

宣誓

今日로서 開始되는 第七回 四俱樂部野球聯盟戰에 出場함에 際하야 生等選手一同은 運動道德을 尊重하고 諸規約을 嚴守하며 審判員의宣言과 聯盟本部의指揮를服從하야 運動精神을 汚濁하거나 本聯盟의 體面을 損傷하는일이업게하기를 誓約하나이다。

右를參加俱樂部選手一同을 代表하야 玆에宣言하나이다。

一九三一年五月二十三日

中央俱樂部主將 崔容俊

選擧法違反嫌疑로 百餘名召喚取調

압호로도 만히 소환할 모양

東大門署徹夜活動

시내 동대문경찰서 고등계에서는 二十三일밤부터 경성전긔회사승무원 十수명을 비롯하야 二十四일 아츰까지에 一백五十명가량을 선거위반혐의로 소환취조하고 二十四일에도 아츰부터 나량판(奈良阪)주임이하 계원부가 출동하야 역시 경전승무원이하 다수를 소환취조중인데 이사건의내용은 이번경성부회의원에 당선된모씨의 운동원과 또게출치안흔 운동원이투표를 권유함에 향응과 매수로써하얏다는 혐의가잇슴으로 그관계자와 권유를바든 유권자들다수는중인 일부는 혐의자로취조하는것이다

이로써 동대문경찰서는 서장실이하 각사무실이 전부취조실로되엇스며 불려온 중인 또는 피의자로 난데업는 대혼잡을이루엇다 아직 취조중임으로확실한것은 알수업스나 고등주임의말을드르면 소환하야 심문이나취조할 인원총수가 三백명내지 四백명에 달할더이라고한다

生活難自殺

【인천】 인천송현리(仁川松峴里)八四번지 최문행(崔文行)(卅八)은 생활난을비관하야 지난二十一일에 목을매여 자살하얏다한다

黃璜河畢竟被逮 又復崔鳳明被殺

한명은 아직도 종적을 감추엇다

義州武裝靑年詳報

【신의주특파원전화·의주지국전보】 二十二일 오후五시경 의주군읍내면 동부동구남교(義州郡邑內面東部洞舊南橋) 부근에서 ○○단원을 수사하든 의주경찰서 급천(及川)순사의 三명이 수상한사람한명을 발견취조한결과 그는 의주군가산면추동(加山面楸洞) 十번지에 사는 황찬하(黃璜河)(三二)로 그의몸에 현금九十二원三十전을 지니고잇는것을압수하고 엄중히취조한결과 이는○○단원의한사람으로 먹을것도살겸마츰장날이라 경관의경계상황을살피려고 나왓다가 잡힌것이라고 한다

그의자백에 의하야 그단원의 한사람인 최봉명(崔鳳明)(三三)이가 몽군송장면운천동 한천교(松長面雲川洞漢川橋)부근 송림중에 잠복하야잇다는것을 알고 의주경찰서 오(吳)경부이하 十여명의 경관이 현장에달려가 포위하고 약한시간이나 교화한 뒤에 사살하고 장총一정、산양총하자루、망원경한개、현금二十一원五十전 군모、군복 각하나、두루마이하벌、주국옷하벌、단배다섯갑을 압수하고 【품속에서】 정의부(正義府)제五중대라고새인 목각도장과 회중천동도 어덧다

백석(白石)경찰부장과 파동과 신의주경찰서장 검사두 이 현장에출동하얏다

그러나 二十一일에 노친단와 한명은 아즉못잡엇다

朝鮮昆蟲展覽會

明廿五日엔無料公開

본사학예부 주최인 조선곤충전람회(朝鮮昆蟲展覽會)는대성황리에 二十四일까지 마치게되엇는데 금번전람회는 조선과학계의 첫사업이니 만큼 二十五일 하로를 더연긔하는 동시에 일반에게무료공개를하게되엇다 전람회의 내용은 이미알려진바이지마는 북으로 백두산、남으로 한나산、동으로 울릉도에서 六천六백九十점의 곤충을 채집하야 곤충연구의금자탑(金字塔)을 일우엇다 금번무료공개는 사회봉사적의미에서이니 동일오전九시부터 오후六시까지 만히와서 보아주기를바란다

集會

▲少年斥候團朝鮮總聯盟理事會를二十九日午後五時半부터鐘路中央基督敎靑年會館內에서開催

그날그날

日曆

明日 五月廿五日(月曜) 四月八日(庚辰)

日出前五、一七 沒後七、四二

月出後〇、三三 入前一、二八

(滿潮)

仁川前一、〇五 後一、三二

釜山一、四〇 二、三〇

鎭南浦二、一五 二、四五

天候

京城 二十五日 曇

二十三日 最低 九、〇

二十三日 最高 二五、九

이하광고

明日

一九三一年度春季 四俱樂部野球聯盟戰 第三日

廿四日 午後四時 於 桂洞徽文球場

全儆新(一)—全中央(三) 第一回戰

【審判】 成觀華、李榮敏、金永奭

入場料 一般卅錢、學生廿錢 聯盟員及校生無料

主催 四俱樂部野球聯盟・東亞日報社

運動競技

俱樂部聯盟戰

培材15 儆新2

=第一回戰=

(培材)	打數	得點	安打	犧打	盜壘	三振	四死	刺殺	補殺	過失
6白基殊	4	2	1	0	1	1	1	0	4	1
6趙漢鵬	1	0	0	0	0	1	0	0	1	1
4羅朝華	4	1	1	1	1	0	0	1	0	1
4裵輪增	1	0	0	0	0	0	0	0	0	0
89吳潤煥	6	1	1	0	1	1	0	1	1	1
7成觀華	3	2	1	0	0	2	0	2	0	0
7嚴點得	2	1	1	0	0	1	0	2	0	0
93金仁植	1	0	0	0	0	0	0	1	0	0
1池成麟	6	1	1	0	0	2	0	1	3	0
5金日培	5	3	4	0	1	0	0	3	2	2
8張貴男	5	1	1	0	0	0	0	0	0	0
2李命福	4	0	0	0	0	0	1	9	1	0
3金永奭	2	3	0	0	3	0	2	6	0	0
7元小者	1	0	0	0	0	1	0	1	1	0
	45	15	11	1	7	9	4	27	13	6

(儆新)	打數	得點	安打	犧打	盜壘	三振	四死	刺殺	補殺	過失
4鄭應淳	5	0	0	0	0	1	0	2	1	1
印李昌俊	4	0	0	0	0	0	1	3	1	1
5金東石	4	0	1	0	1	1	1	5	0	3
8李永善	4	0	0	0	0	1	0	0	0	1
179劉約翰	3	1	0	0	1	0	1	0	5	0
71金貴男	4	0	0	0	0	2	0	0	2	1
6李彰善	4	0	0	0	0	2	0	1	8	8
2崔俊亮	4	0	1	0	0	1	0	7	1	1
3崔海龍	3	1	2	0	1	1	1	9	0	0
	35	2	4	0	3	9	4	27	13	11

【備考】 三壘打(培)金日培△二壘打(培)張貴男、(培)嚴點得▲重殺(儆)李昌俊—鄭應淳▲暴投(儆)劉約翰二△捕逸(儆)崔俊亮三▲交代(培)四回成觀華退하고嚴點得入、七回白基殊代에趙漢鵬、羅朝華代에裵輪增、嚴點得代에金仁植、金永奭代에元小者入하고、八回左(吳)—(金)交代 △(儆)三回左(李)右(劉)交代、四回右(劉)投(金)交代▲所要二時間四十七分

協成과啓星優勝 初等庭球大會

市內初等學校懇話會主催、第二回初等校庭球大會(朝鮮日報後援)는 廿三日京城運動場에서擧行한바 다음의成績으로男子部에는 協成普校가、女子部에는 啓星의林分干、金玉順組가優勝하얏다

○啓星×三興、○協成×和光
×三興○和光、○協成×啓星
○啓星×和光、○協成×三興

中等籠球準決에 中東과徽文勝

延專主催、第一回中等校籠球大會第二日은 廿三日午後延專코-트에서擧行한바 다음의成績으로 中東과徽文이決勝에남엇다

【第三回戰】

徽文19(7—10、12—8)18普成

協實23(10—4、13—5)9儆新

【準決勝戰】

徽文28(11—11、17—4)15培材

中東31(9—8、22—12)20協實

府廳對遞信野球

京城府廳對遞信野球戰은 來二十七日午後四時半 京城運動場에서 열기로되엇다

殖銀8 京電3

殖銀再勝 京城實業野球리ー그、殖銀對京電第二回戰은 廿三日午後四時부터 京城運動場에서 審判(球)柳(壘)西村、小幡、殖銀先攻으로開始한바 八對三으로殖銀再勝하얏다、閉戰五時四十五分

殖銀(先)			京電
4 梶山	38打數26		7 西岡
4 磯部	10安打1		4 森
6 鈴木	2犧打1		4 中原
1 李榮敏	5盜壘2		13 中村
9 松本	4三振6		8 旗谷
3 岩田	1四死9		9 小西
2 田代	1失策6		2 將積
7 那須	5殘壘6		5 平山
5 小林	1二打0		3 長我
8 市村			1 橋本
			6 津島

得點 殖 000020501=8
　　 電 030000000=3

廿五日의運動

▲全儆新對全中央第一回野球戰 午後四時 桂洞徽文球場

▲延專對京醫專對校庭球第一日 午後四時 京城球場

▲第一回中等校籠球大會決勝徽文對中東戰 午後三時 延專코-트에서

▲大朝主催、全朝鮮蹴球大會第一日 正午京城運動場에

朝鮮을 빼라먹는 무리들

天道敎와 基督敎、佛敎

大사괴사건 十萬圓事件

어린이五月號

나온중에 이번치를 꼭읽어주십시요

어린이五月號

부록주고 사진주고 단十전입니다

어린이五月號

이번에는 사람마다 先生마다 칭찬하는잡지 一錢우표十一枚만 京城府社로보내면 곧보내드립니다

世界第一

갑싼雜誌 별건곤大好評

尋小校長과 教員 普校生毆打重傷

유도식으로 메처서 중태에 싸저 學父兄은 檢事局에 告訴

【보성】 지난二十一일 오후다섯시경 전남보성(寶城)심상소학교교정에서는 일대살풍경이 연출되엇다 그내용을 듯건대 동읍내보교 四년생 최정옥(崔正玉)이는방과후문전에잇는 동소학교교정에 놀러갓섯든바 그때마츰 수명의 소학생이 못(釘)을가지고 놀고잇섯슴으로 최정옥은 그못을구경하고잇는데 소학생수명은 달려들어 남의학교와무엇하려왓느냐고 못으로 찔으며 달려들어 따림으로 싸움이 시작되어다수소학생에게 할수업시 구타를당하고잇든차 동교 사무실로부터 상택(相澤)교장과 동긔(藤崎)교사가 달려들어 유도(柔道)로 메치며 함부로떠림으로소리를 웨치든차 근방을 통행하든림서규(林瑞圭)는 현상을쪼차가보니 十二三세의 보교아동이교정에 혼도하여잇스며 두선생이하 수명의 소학생이살긔등등하야잇슴에 놀래여읍내보통학교로 전화를 하는동시피해아동은 보성의원으로 다려고가 응급치료를 시켯스나중태에 싸젓다는데 그학부형은 두선생을상대로 장흥(長興)검사국에 고소를 하엿스며 이에분개한일반보교학부형측에서는 학부형회를개최하고 사건의 처치를토의한다고한다

「毆打는事實」 記者와一問一答記

記者 당신과 부하교원 동긔씨가협력하야 보교생 최정옥이란 아이를구타하엿다니 사실입니까

校長 구타라고야할수잇습니까만 정말잘못햇습니다 때린것은 사실입니다 그러치안하도 보교선생들과 경찰서순사를 통해 여러분께 사과를 하려든것입니다

記者 선생께서는 무슨 리유로 때렷섯는가요

校長 배일리유가 똑똑히 잇겟슴니까만 그아이가 자전거를타고왓슴에도 여러가지로 주의를시켯는데 또교정에서 싸음하는것을 보니까 발작적으로 흥분되어그런것입니다 여하간 대단히잘못된일이니 여러학부형이 용서하시십요

한것은 물으겟슴니다만 학생들은 그러케 말하드군요

脚戲와素人劇

【신원】 재령군신원시(載寧郡新院市)에서는 六百원의경비를드려 그동리뒤人산에 정자를 새로건축하고 오는음력四월八일을 긔하야 락성식을 성대히 거행하는 一방이어 씨름대회를열고 밤여흥으로는 당지청년구락부(靑年俱樂部)주최의 소인극(素人劇)이잇스리라는데 시민들은 목하그준비에 분망중이라한다

假紙貨使用 賭博이流行 법인체포中

【려수】 지능범(智能犯)이 만흔 려수지방에서는 최근에와서 수천원식 가지고 사긔도박(詐欺賭博)이 류행되는중이다 지난二十일 오전十一시경 려수읍 동정(東町) 리상우(李祥宇)와 광양(光陽) 림채일(林采日) 두명을(未逮捕四名)을 엄중히 취조한후 리씨는 당분간 석방하고 림씨는 류치중에잇다 내용이 계획적인 사긔 행사 일뿐 아니라 련루자 수배에 관계가잇다하야 당국에서는 확실한발표를 피하나 이미발로된바를들으면 전긔 리씨는 현금 一천二十원에 「맛도」를(假紙貨) 사용하야 二천원으로 행사하고 림씨편에서는 현금四十원에 「맛도」를사용하야 三천원으로행사하엿다 그리하야 림씨외四명은 공모하고 리씨의 금전을 도취하엿다는것이다

六十萬圓豫想으로 美湖川堤防改築

당국 주영으로 공사를착수 ◇東西兩面이爭先

【조치원】 충북 진천(忠北鎭川)과 청주(淸州) 충남연기(忠南燕岐) 三군을 관통한 금강상류(錦江上流)인 미호천개수공사(美湖川改修工事)를 六十만원으로 빈민구제하에 긔공한다 함은 긔위보도한바어니와 지난 十六일부터 당국 직영(當局直營)으로 공사에착수하야 매일五백여명의인부가 출역하는중인바 임금(勞銀)은 일인에十六七전으로 七十전까지 준다한다 근항농촌빈민생활상태가 초근목피로 연명하던터이매 이공사가시작된후로는 다소간참상에 빠진 빈민농촌생활이 정돈된듯하다 그러나 이공사는 동면(東面)과 서면(西面)경계를표준한 미호천제방(堤防)을 개축하는것인데 당국에서는 동면먼저부터 착수하야 방금진행중임으로 서면(西面)주민들은 동면을 먼저하면 서면의홍수 피해가 만흘거시라고 예측하야 동시에착수하야달라는 요구로 공사담당주임고교기수(高橋技手)를 방문하고 교섭하얏다는데 고교씨는 왕방한 긔자에게 다음과가티말한다

工事擔當主任 高橋技手의말

그런한사실이 잇슴니다 그런나 동면으로 말삼하면 종래의손해가 만흔관계로 동면을먼저착수하라고 一월 공사 수축이완성되엇슴으로 이것을변경하기는 어려운문제이올시다 형편상 동면편의공사를 락성한후가아니면 서면편을 착수하기가어려운듯한데 예상하면 명년도에나 서면은 착수할듯함니다운운

城津六名釋放 모다무죄로

【성진】 지난十四일에 성진군 학서면(城津郡鶴西面)으로 산림조합(山林組合)에대한 강좌를나갓섯는데 산밧(山田)은十五도(度)이상 경사(傾斜)진곳은갈지말라함으로 산밧十五도 이상을 경작지 못하면일반농민은굴머죽는다하고 성진청맹(城津靑盟)원 리길규(李吉奎)외수다한사람들이 출장한 산림조합원을구타하얏다하야 성진경찰서 학서주재소(鶴西駐在所)에 피검되어 성진경찰서에 나와오날까지 엄중한취조을밧다가 지난二十일에 六명이 모다석방되엇다 하는데 씨명은 다음과갓다한다

李吉奎 許丙佶 [illegible]蘭允 韓永洙 許熙顯

創立委員長 辭任에歡喜 於之屯水組問題

【사리원】 황해도봉산군 어지둔수리조합 (鳳山郡於之屯水利組合)창립반대는날이갈스록 그세가 매우노파가는동시에 창립위원장이 사면하얏다는 소식을드른 일반지주와 소작인들은 비상히깃버한다 뿐만아니라 어지둔수리조합 창립을 찬성한다는의미하에 동의서에 조인을한 지주들에대한 원성도 적지안타

三百坑夫를 突然히解雇

경찰측은 엄중한 경계 新興炭鑛業務縮少

【신흥】 신흥탄광(新興炭鑛)회사에서 갱부(坑夫) 해고설로 자못그공긔가 긴장되어 간다함은 이미보도한바잇섯다 요사이에이르러서는 전긔설이구체화하여 전긔회사를 상대로호구하든 로동자등 四백여명중에서 애오라지 백명만남기고는 전부해고를시켜 버린다는바 장래 그들 생로가문제라는데 경찰측은 외면 엄중경계를하는터이라하며 이제듯는바에 의하면 전긔회사에서는 그내용을 축소할뿐아니라 갱내(坑內)에 물이넘치어 그사업에더욱 치명상을 밧을뿐이라는데 그들을 상대로하든七백여실업군(失業群)에 생로는 배옥문제가 될뿐이라고한다

某先生排斥 五學年動搖

【보성】 지난二十二일보성공보교 五년생일동이 시간에 전부 책보를가지고 나가버렷다 마츰 소학교 교장과선생이보교생을 구타하얏다는일로 일반학부형과 선생이 흥분된때라때단히 분개엇스나 여러선생의간곡한 칭오로 두어시간후곳복교하얏다한다 이제그와가티된 사실을 듯건대 五년담임선생인 모(某)는 평소어린애들을 잘때려 교육자의 책임을몰각하는일이 비일비재하엿섯는데 지난二十一일실습시간에 또 어린애를 때려중상케한일이잇서 부형까지 또차오는등 일장풍파가생것다 이에흥분된 五년생전부가 그러케 잘때리는선생에게는 배울수업다고 그와가티 휴학을단행하야 일시는 교내공긔가험악하얏든것이다

學校側談

교장선생도안게시는때이런일을당하니 엇절줄을 모르겟슴니다 이것은 순전히 선생배척 입니다 따히 때리지는 안흔것가태요 실습시간에 지울려하니까 좀때리엇슬뿐인가합니다 량선생이 그런폭언을 하오안

南朝鮮野談巡訪 鎭海—其九— 尹白南

銀魚의名所 鎭海에를 와엇습니다 十年만에 이곳을 와서보니 몃가지의 變한것이 눈에 씌입니다 배다리(舟橋)가 콩크리트의 堂堂한 다리로 變하야 人馬가 絡繹不絶하옵더이다 그러나 鎭海樓의 붉은기둥과 現代式콩크리트다리하고는 全然 調和가 되지안허 몰이어 鎭南第一樓의 景色을 죽이는 感이 잇습니다

×

樓앞에 江물비츤 어쇠 그러 맑습니다 이러한 맑은 물이기에 외당 銀魚가튼 정한물고기가 잇는것이지—하는 自己觀察本位의 斷定을 나리엇습니다

×

멀리진 큰 아기네와 머리곱게 비슨 녀인네들이 三三五五의 작을지어 열래를 하는것도 업지못할 點景이거니와 太公望의 弟子들은 其수효가 大凡 二十餘人의 多數이더이다

×

그러나 銀魚잡이는 六月一日부터가 解禁期이라하니 모처럼 이곳에와서 銀魚膾 못어더 먹는것이 퍽 섭섭하옵니다

×

支局長金氏의 好意로 오래간만에 蔬菜를 어더 먹엇습니다 防風草라는 나물. 이것은 아마 다른地方에선 듯도보도못하는 貴한 소채인듯 香氣로코로 맛도조키로 싀음갓다가 퍼트릴 生覺으로 種子를 어더가지엇습니다

×

아시는바와가티 生은 元來 술은 한잔도 먹지못하건마는 응당 술잔이나 먹으려라고 想像하고 술勸하는데에는 매양 질겁이 남니다 好意를 밧지못하니 未安도하고 禮도아니라 퍽 석한 境遇가 만습니다 여긔서도 하마트면 질겁을 당할것을 理解잇는 支局長의덕으로 간신히 그것을 免하얏습니다

四百勞働者 江景署에殺到

다수인을 검거한 싸닭에 六名은結局檢束

【강경】 지난二十三일 오후二시경에 二十여명인부를 삼호리(三湖里)부근 공사장에서 검속하야오자 뒤를이어 사백여명인부가쇄도하야 배호장을 일우엇다가 동록시경에야 해산되엇다한다 이는 긔보한임금문제로원청이잇든론산강 개수공사 강경평야중간 부근에잇는 공사장에서 소위십장이라는 한산로동자한명이 불과 二、三十전에 팔여일하는 촌이부삼사인을 평수를 속엿다는 무근한구실로 구타하며 욕설을하자 노임에 불평잇든 촌인부수십명이 달려들어 싸리기시작하야 사백여명 인부들이 흥분하야 일제히달려들자 사태위급함을봄 공시 출장소에서는 강경서에급보하자 七八명경관이 현장에출장진정하고 二十여명을검속하야 강경서로 감음본 사백여명은 그들을동정하야 그가티 경찰서까지 쇄도하엿섯다 하며 검속한자중 유침인을제한외는 모다즉시 석방되엇다한다

卄名患者中 死者가七名

극력 방지하나 무가내하 會寧에惡性天然痘

【회령】 회령(會寧)의 천연두(天然痘)는 그후 더욱창궐하야 관계당국의 방지에 적극로력함에도 불구하고 지난二十一일까지 벌서 발생자가 二十명이나된다 특히 금번 류행의 천연두는 극히 악성이여서 二十명중에사망자가 시내에 五명 시외에 二명 현재환자가 시내 五명 시외 八명이라고한다

巡廻音樂盛況 【평양】

연희전문학교 동문회평양지부(延禧專門學校同門會平壤支部)주최 본사평양지국(本社平壤支局)후원인 연희전문학교 순회음악회는 예정과가티 지난二十二일 오후八시반에 부내백선행긔념관(白善行記念館)에열리엇는데 입장자는 정각전부터 물밀듯하며 장내는 립추의여지가 업시되엇고 음악을 시작할때에는 만원에 또만원이되어 문전은 대혼란을 일으키엇다

民情살핀面書記 貧民에分米

가세도 넉넉지못한터에 報恩郡水汗面書記

【보은】 춘궁은 닥쳐와서 먹지못하야 죽겟다고 부르짓는때에 가세도넉넉지 못한보은군 수한면서긔(報恩郡水汗面書記) 박순세(朴洵世)씨는 지난달二十四일동면병원리(並院里)에 출장을 갓다가면민이 참경에싸저잇는것을 목견하고 돌아와그이튼날백미오승(白米五升) 씩을 궁빈자十二명에게 분배하야주엇다는 감격한사실이 잇다

酒酊끗테縊死

【홍성】 충남홍성군 광천면신진리(忠南洪城郡廣川面新津里)에사는 박영회(朴英會)(四七)는 지난二十一일밤 十二시경에 자긔집문아페잇는 밤나무(栗木)에 목을 매여무참히도 죽엇다는데 원인을 조사한바에 의하면 이날밤 긔자박씨는 술이대취하야 주정을 하든터에 오줌을 누러간다고 박그로 나간후 돌아오지 아니함으로 그아들박윤수(朴允洙)(三)는 자긔아버지를 차지려 박그로 나가 본즉 밤나무에 목을매여 무참하게도 죽엇다한다 이를안 동주재소(駐在所)에서는 공의남궁훈(南宮鰥)씨를 대동하고 현장에달려가서 시체를 검안하얏다한다

吉州郡內에 又復檄文撒布

내용이 과격한것을 수처에 犯人을目下嚴探中

【길주】 지난二十一일에 길주군덕산면일대(吉州郡德山面一帶)에 ……… 극히내용이 과격한문구를나열한 세력다수가 덕산일대에 금천시를비롯하야 수처에산포되어 금천주재소에서는 소원총동원으로 연일범인체포에 노력중이나 아직범인은 잡지못한 모양이라 한다

地方雜信

消息

◎中國輯安縣立中學同胞學生一行 去二十一日江界到着

縣里幼園設立 의연이답지

【가평】 가평군에는 일개의유치원이업서 일반이 유감으로생각하던바 근간에 긔독교회(基督教會)를 비롯하야 일반 유지의 열성으로 본군중앙인 현리(縣里)에 유치원을 설립하고 원아를 모집한결과 방금二十여명을 교도하는중인데 유지의긔부금은 알에와갓다

閔範四十圓、柳德守十圓、柳昌烈十圓、黃錫夏五圓、鄭仁鐘五圓、尹元植五圓、李九鳳三圓、其他二十圓

羅南

◇俸給生活者의 德分으로 特殊하게도 不景氣 몰은다는 羅南에서近間俸給減下問題로 商人들의 머리가 뒤숭숭하다나

◇減下當할官吏는 아즉도 別말성이업는데 商人들이 재바르게 근심하는것도 近代社會를 率直하게 그려내는것

6月新譜 ビクターレコード
五月二十五日發賣 NV-111
邦樂名曲の粹
新山姥 常磐津 松尾太夫 / 千鳥の曲 荒木古童 / 雲のあなたへ 宮城道雄 吉田晴風 / 地獄加藤 田中旭嶺
昔 淺草オペラの唄を / 歌劇カルメン 歌劇ブム大將 / 片想ひ 風の鈴蘭 佐藤千夜子 / なさけ和蘭陀船 根本美津子 羽衣歌子 / 日大工科の歌 進め日大 內田榮一 日大合唱團
くちぶえたかく朗かなる唄を / 當世娘氣質 羽衣歌子 小唄芳子 / アラ・モードぶし ふみ / 法政大學生歌 法政大學行進曲 法政大學應援團 / ブルー・レッド・アンド・ブルー ソプラノ / 北太平洋 横綱の歌 徳山璉 藤本二三吉
子なとろ子とろ 櫻のうた おぼろお月さん 平井英子 / まゝごとコッコ 本多信子
土の香り 郷土の唄 / 新こちやえ節 新津甚句 出雲甚句 鴨綠江節 八木節 相川甚句 江差追分 松前三下り / 勝太郎 駒太郎 君子 井上愛太郎 村田文三 菊地歌樂 白倉新月
吉原百人斬 大石東下り 一心太助 / 寶々木米若 鉄龍齋貞雪 吉田日の丸
エロを投げたり グロを打つたり / 女給チーム 西村樂天
映畫主題歌 / レヴューの踊子 田谷力三 羽衣歌子 / 巴里の屋根の下 田谷力三 徳山璉 / 寂しき路 しかも彼等は行く 四家文子 藤本二三吉
此レコードを聞かずして六月のレコードを論ずることなかれ
海 (ドビユッシー曲) コッポラ指揮 交響管絃團 / 第五運命交響曲(ベートーヴエン曲) シャルク指揮 ウイーン・フィルハーモニック管絃團 / ルイ十三世の歌とパヴァーヌ あでびと クライスラー / 歌劇イ・ロムバルディ 歌劇アッチラ レートベルク ピンツァ
ガゼン人氣のジャズ名盤 / 眠い夜汽車 殿様のお馬 アーデン及オーマン ヒルトンと其管絃團 / 輝やく希望 優しい默め 其管絃團 / 巴里の屋根下 セ・バ・コム・サ ウォーバーと其管絃團
其他名曲名歌數十種は新譜目錄をご參照下さい
日本ビクター蓄音器株式會社
HIS MASTER'S VOICE

六月號 改造 五大論文特輯
定價五十錢 送料三錢 東京市芝區愛宕下町 振替東京八四〇二番 改造社
法治と暴力 末弘嚴太郎
カムチャツカ漁場日記 上脇進
・マルクス地代論をめぐりて 高田保馬
經濟學(小汀利得) 獨逸時事画報 グラビヤ版
野球 不景氣を知らぬは神宮球場ばかりなり
反サヴェート經濟戰爭 大塚金之助
・藝者再吟味 平山蘆江
スペインの共和革命 其他 世界情報
詩
入選小說 墜落の唄
美人電車 酒井眞人
最新・舞踊 交代
小說 蝶つがひ 中野重治
太田千鶴夫
小說 或る別れ話 里見弴
撫順炭礦 中西伊之助
草津溫泉 猪俣ペル
スチール株に現れた米國の景氣
世界航空界のレコード
肉體的苦痛の受け容れ 倉田百三
小說 ズラかった信吉 中條百合子
・文藝時評 小林秀雄
金融資本の恐慌對策 猪俣津南雄
豆ゴルフ風景 中村正常
・大いなる過渡期 前田河廣一郎
若槻内閣と三制整理
三大整理の目標如何 高橋龜吉
地方行財政及税制整理 田中廣太郎
財政整理の階級性を見る 久保寺三郎
反宗教運動 本莊可宗
獄中から 三田村四郎
海外寄稿(本社特約) (伊)ムッソリーニ (獨)ゼフェリクン (佛)パンルヴェ (英)チャーチル
近代地主的土地所有の擁護について 櫛田民藏

就職
恩給
開業廣告
前安東、福信洋行出張所를本商會에서引繼하야 開業하엿사오니倍前愛顧하야주심을伏望
北滿原木 鴨綠江材 建築用材 具用材
京城櫻町大同橋通(一心食堂前)
大松材木店 電話一四一七番
職業
男女貴賤不問 自宅에서 副業 收入確實
國學總本店